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사창동 성당 김병철 가브리엘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시복시성기원 순례를 마치며 어떻게 하면 신부님을 닮을 수 있을까 걸으면서 묵상한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최양업신부님 탄생지를 첫 번째로 찾아가서 떠남에 대해 묵상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이 떠날 때를 생각하며 익숙한 삶의 자리를 비우고 신부님을 찾아 나섰다. 무조건 믿는 믿음만이 순례의 출발임을 깨달았다. 말씀을 믿고 무조건 떠나라 이게 이번 순례의 화두였다.

두 번째, 신시도를 순례하면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믿고 최양업 신부님을 깊이 묵상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 때문일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상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나는 알았다. 세 번째, 멩에묵 성지를 순례하면서 서간에서 만난 양반 조씨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세상에 믿을 분은 오직 한 분임을 깨달았다. 없어질 세상 것은 모두 비우고 그 빈 곳에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로 다짐하며 기도하였다.

네 번째, 제천 배론성지를 가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오롯이 봉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묵상했다. 황사영 알렉시오를 보면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권력, 영광, 성공 등은 가져갈 수 없음을 말이다. 최소한의 삶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온전히 그분께 내어 맡겨 하느님의 시선으로 사는 게 진리임을 깨달았다.

다섯 번째, 봉암공소에서는 김 사도 요한에 관한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를 읽으며 하느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선택은 곧 은총임을 알게 되었다.

여섯 번째, 배티성지에서는 무명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를 쉽 없이 바쳐드려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더불어 나무 십자가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체험하였다. 이는 최 신부님의 십자가 영성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순례의 큰 기쁨이었다.

일곱 번째, 남방제성지에서는 조운호 요셉 성인을 통해 신앙의 유산에 대해 묵상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신앙은 유산된다는 것을 부자 성인은 가르쳐 주었다.

여덟 번째, 도양골에서는 복음은 박해를 통해서 세상으로 향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

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복음말씀을 온전히 체험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길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홉 번째, 진목정성지에서는 육신의 죽음은 옮겨 다닐지라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산상수훈 말씀을 집대성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열 번째, 살티공소 순례는 하느님을 위해 동정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아가타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었다. 동정의 삶은 주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는 커다란 은총의 삶이다.

열한 번째, 장대순교지에서는 군사훈련장이 교우들의 사형장이 된 사실에서 박해시대의 비극을 만나게 하였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느님을 찬미한 순교자들을 십자가 영성을 실천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 당시 살았다면 어찌하였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며 결국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열세 번째, 오룬대 성지에서 복자 이정식 요한의 순교를 통해 주님을 믿는 신앙에는 나이가 없으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깨우치게 해주었다.

열네 번째, 수리산성지에서는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복자 이성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두려워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덥히면 불가능이 없음을 만나게 하였다. 그 분은 임마누엘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게 이끌어 주었다.

열다섯 번째, 좌포도청터는 당시의 흔적은 없지만 죽음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낸 순교자들의 강한 믿음을 만나는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었다. 두려워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믿으신 분들로서 오늘을 사는 성당 문턱 신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열두 번째, 당고개 성지 전시관에서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복자 이복례 마리아 성가정화를 보면서 당시로 돌아가 성가정의 은총을 만나게 해주었다.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조선의 아브라함을 만들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을 보았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 사목 순방지를 순례하며 영성적으로 많은 것을 체험하였다. 더불어 순례를 마치고 성지가 내어준 영성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 다시 읽고 묵상하며 순교 여정을 이어갔다. 성지순례는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가슴속으로 나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상의 자리에서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결국 성지순례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땅 위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도록 격려해준다.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함께하심

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만나는 영성은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고 나의 시선을 언제나 그분에게 두고 살라는 가르침을 만나는 자리이다. 만나는 성지마다 신앙의 돋보기를 통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성지순례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살아 있는 동안 늘 순례의 여정으로 살라고 한다. 세속에 빠질 때마다 잠시 멈추어 순교자들을 묵상하며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를 통해 즉시 하느님께 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그 열매는 한계 없는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 가르침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